

근현대사 특강 근대의 여명

# 탕평정치가 잉태한 심청전·춘향전, 새로운 역사 신호였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taejinyi4343@gmail.com



심청전과 춘향전은 조선 후기 대중문화의 양대 명작이다. 판소리와 소설책 두 종류로 전해왔다. 언제 등장한 작품일까. 국문학계에 8따르던 춘향전은 유진한(柳振漢)의 한시 춘향전이 최초다. '어우야담'의 저자 유몽인의 후손인 작자가 1753년(영조 29) 전라도 여행에서 돌아와 이듬해에 지은 것으로 춘향전 줄거리가 담겼다. 그곳에서 들은 것을 한시로 남긴 것이다. 춘향전의 본령은 판소리 완판본(전주)이다. 19세기 초반 전주 일원에서 등장하여 신재효(1812~1884)의 남창본(男唱本)에서 집대성되었다. 1867~73년 사이 정리된 대표작이다. 경판 춘향전은 읽기용으로 '열녀 춘향수절가'란 제목이 붙었다. 1864~69년 무렵 소설로 나온 '남원고사(南原古詞)'는 책 빌려주는 점포에서 인기 최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춘향전은 18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19세기 초중반에 소리와 소설 두 가지 형식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심청전은 한문으로 된 것이 없고 한글 소설로는 경판본과 안성본, 판소리로 완판본이 있다. 판소리로 신재효의 것이 역시 대표작이다. 국문학계는 최초 판본이 19세기 초에 나온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정조는 재위 18년(1794) 정초에 백관을 거느리고 할머니(영조 계비 정순왕후)와 어머니(혜경궁 홍씨)를 찾아 특별한 세배를 올렸다. 할머니가 50세, 어머니가 60세 되는 해였다. 할머니가 계비로 늦게 간택된 탓으로 며느리보다 10세 연하였다. 정조 임금은 두 어른이 같은 해에 순년(旬年, 10년 단위)을 맞이한 것을 "천 년에 한 번 있을 경사"라고 축하하였다. 이어 신하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전·현직 관리 70세 이상, 사(士)·평민 80세 이상, 80 미만이라도 해로하고 있는 부부들을 모두 조사하여 '작위'(爵位)를 내리고 해당자의 이름과 나이를 적어 올리게 하였다. 9개월 뒤 총 7만5145인의 이름과 나이를 담은 '인서록(人瑞錄)'이 올려졌다.

정조는 요임금 시대에 장수, 부귀, 다남(多男)의 태평성세를 누렸다는 화서국(華胥國)의 실현을 꿈꾸었다.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도시를 새로 만들어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불렀다. 화성은 조선의 화서국이었다. '인서록'은 곧 왕실 두 어른의 특별한 신희(新禧)를 기념하여 화서국의 장수 실현을 기약한 책이다. 이에 신도시 화성과 아버지의 원묘(園廟) 현릉원 공사가 완료되었다. 아버지의 신분이 세자였으므로 능이 아니라 원이었다. 임금은 이듬해 이곳에서 어머니 혜경궁의 진갑 잔치를 성대하게 열 계획으로 12월에 정리소(整理所)를 세웠다.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을 총리대신, 호조판서를 정리사, 그 아래 중신 5명을 배치하여 10만여 냥의 예산을 배정하여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듬해 윤2월 11일 예정대로 임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갔다. 먼저 아버지의 묘원을 찾아 인사를 올렸다. 이어 화성 낙남헌에서 어머니 생일을 기념하여 문·무 특별 과거시험을 연 뒤 봉수당에서 어머니 생일잔치를 올렸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1735년(을묘, 영조 11) 생으로 동갑이었다. 흔히 '을묘 원행(園幸)'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김홍도의 화성행행도 8쪽에 담겼다. 다음날 낙남헌에서 양로 잔치가 열렸다. 서울에서 수행한 노 대신 15명과 화성 거주 노인 969명 총 984명에게 음식과 작위를 내렸다. 네 번째 화폭에 그 광경이 담겼다. 서장대 군사훈련(제5쪽), 신하들과의 활쏘기 대회 행사(제6쪽)를 차례로 마치고 환국하기 전 임금은 남은 비용을 '정리곡'이란 이름을 붙여 전국 8도에 내렸다. 각 도에 1000~3000냥씩 나누어 화성 잔치의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하라는 뜻을 실었다.

### 일반 백성도 유교 실천 덕목 공유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던져진 후 용왕의 배려로 연꽃으로 세상에 되돌려 보내져 마침 그곳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그 연꽃을 건져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연꽃이 처녀로 변하자 왕비로 삼았다. 왕비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맹인 잔치를 열어 부녀 상봉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심봉사는 딸의 목소리에 놀라 눈을 반짝인다. 이 줄거리에서 주목할 것은 지극한 효성이면 평민도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왕실이 마련한 전국 맹인 초대 양로 잔치이다. '을묘 원행'의 양로 잔치가 없었다면 읽기 어려운 구성이다. 심청전이 '을묘 원행' 직후 19세기 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화성 양로 잔치가 없었다면 그런 높은 구성력을 지닌 작품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2년 뒤 (1797) 새해 첫날 정조는 다시 신하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기

정조, 어머니 생일 맞아 양로 잔치  
심봉사 눈 뜬 전국 맹인잔치 모티브  
평민 효녀, 왕비 되는 메시지 담아  
변사또 수청 거부한 춘향의 항변  
누구나 유교 주체될 수 있다는 뜻  
서민 대중 국가 의식 변화 이끌어



1 '열녀춘향수절가' 경판본, 한글박물관 소장본. 민간 출판이란 뜻으로 방각본이라고도 한다. 2 딱지 본 심청전 표지. 3 1910년대부터 반세기 5일 장터 책장수들이 팔던 이른바 딱지 본 춘향전 표지. 4 정조대왕 어진. [중앙포토]

뺨을 팔도 신민들과 함께 누리고자 효자를 표창하고 노인을 경모하는 의식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내가 부덕한 탓으로 풍속이 새로워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요순시대처럼 오륜을 닦는 것이 주요하므로 모든 공부의 출발인 '소학'을 백성들이 뜻을 쉬어 알 수 있도록 설명[訓義]을 붙이고, 또 '심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친 '오륜행실도' 연해본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농촌에서 노인을 양육하는 향음주례를 행하여 노인을 섬기면서 농민들이 힘써 농사짓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향약 또한 나라를 편안

하게 하는 요결이므로 뺨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듬해 그 결과로 언해본 '오륜행실도'가 간행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이 책 머리에 앞의 지시를 정리하여 양로와 무능(務農)을 위해 소학·오륜행실·향음주례·향약을 반포하는 윤음을 붙였다. 소학, 오륜행실, 향음주례, 향약 등은 지금까지 양반 사대부들의 것이었다. 정조는 일반 백성들도 이를 공유하여 그들이 유교 덕목 실천 주체가 되어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가지게 하려고 하였다. 서민 대중의 국가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조치였다.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는 수청 틀리는 변 사또에 대한 춘향의 항변이

다. 남자는 두 임금을 모실 수 없고, 여자는 남편을 바랄 수 없는 것이 천륜인데 나보고 수청틀리는 사또 당신은 임금을 바랄 사람이라고 질타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평민 출신도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심청전의 메시지도 같은 지향이다. 어사 출두 후 이 도령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춘향은 나중 나온 판본에서 지위가 집에서 처로 바뀌고, 왕이 춘향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맺어진다. 두 작품은 곧 탕평 군주, 특히 정조가 모든 신민이 나라 주인이 되게 하려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대한 합창이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